내게도 은사가 주어질까? (I)

(고전12:4~11)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게도 은사가 주어질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말씀의 나눔을 오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도 은사가 주어졌을까, 주어질까?' '주어졌을까'는 이미 주어진 것이 있겠나 하는 것이고, '주어질까'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은사의 주어짐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말의 뜻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공짜 선물이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돼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없다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바른 고백인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 세상에 마귀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중심부로 끌려가고 잡아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의 소원과 바람이 생겼다면,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마귀의 중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향합니다.
왭니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만 마귀의 중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당기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 한분만을 참으로 소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중력이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내가 갈 길을 정해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끌린다는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상 자체가 좋아서 우상에게 끌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가치에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죠.
요즘은 세상가치에 끌려서 세상 것을 바라는 마음, 마귀의 중력에 끌려가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자기계발, 스펙의 발전,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전지식을 염두에 두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데, 단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게 작용하는 마귀의 중력, 세상의 중력, 세상의 가치들의 가면을 쓰고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이 중력이 끊어진 곳임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가치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있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은사의 모양으로 주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성령의 은사가 실현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들에 의해서 한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처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사건인 은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는 인격적으로 타고난 성격적 기질이나 소질이 아닙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에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이나 수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 베드로에게 임한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 은사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가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스페인어가 떨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학에 소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바깥의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학력, 나의 능력, 신분, 나의 소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은사가 다양하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겹쳐질 수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강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은 지혜를 은사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사도바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에요, 베드로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지혜의 은사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강약의 차이나 가짓수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은사가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은사가 강조적으로, 어떨 때는 저 은사가 강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얼 뜻하는가 하면, 은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져서 나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볼펜을 친구에게 주면, 볼펜을 선물로 받은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그 볼펜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면 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볼펜처럼 내 것

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체질이 될 수도 없고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은사의 나타남은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그 한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병 고치는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큰 착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동안에 성령님 스스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은사라고 이름 짓는 사건들이지, 우리에게 주어져서 소유될 수 있는 독립적인 어떤 물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사의 특징은 통일적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각 사람의 성향과 취향과 죄적 습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려는 사람과 은사의 사용이 부딪힐 수 있지만, 이게 통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오늘 4, 5, 6절에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난 은사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사용이 있었으면.
통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은사를 내 것으로 알고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은사적 사건이 기억되면서 그 은사를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큰 잘못이 있고, 오늘날도 이런 일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자, 이런 보편적인 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사도바울이 말씀하시는 아홉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대충 넘어가지 말고, 한번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은사 은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은사로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구분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아리송하고.
아리송하다는 것은 학자들이 고심 끝에 설명해놓은 걸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자귀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현실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석책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놓았는지,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구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이 맥락에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 지혜입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삶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적 노력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황이나 병이 든 상황이나 일이 실패한 상황, 그런 삶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묻게 되잖아요? 그 의미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란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의 형태는 세 가지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incarnation의 사건으로 나타난 말씀, 주님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 근거된 설교 말씀,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건으로서의 말씀.
이렇게 삼중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지식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고 정답을 찾아가는 게 해석과정이라고 그러면, 지식의 은사는 성경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구분이 가시겠어요?
삶에 대한 해석과 말씀에 대한 해석,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사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

든 은사는 다 공생애 때의 주님에게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수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수에 도달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훌륭하신 것이죠.
그러나 조건 자체가 더 불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리나 창녀보다도 하나님나라에 더 늦게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창녀와 세리들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보다 하나님나라에 더 늦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역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대제사장과 창녀를 비교할 때, 대제사장이 훨씬 불리한 겁니다, 복음의 진수에 도달하기가.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현상을 해석하는 주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사회가 인정해주는 대형교회, 성공 명예 인기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대형교회에서 세상의 가치를 많이 지니고 계시는 목사님, 대형교회의 목회가 귀중하고 소중해서 마음으로 가득가득 그 대형교회로 채우고 있는 목사님은 마음을 다 비워야만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함에 있어서 훨씬 불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길이 십자가에요, 십자가에서 세상가치에 대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하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바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도바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교회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인바 된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편지를 쓴 것은 삶의 정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지혜였어요.
그러면 해석의 원리가 뭡니까?
기독교가 제시하면서 추구하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머리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이고, 이 세상의 내 뜻을 완전히 죽임으로써 세상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아지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나의 힘이 다 죽어버려서 세상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한 분이 온전히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돈이 전혀 없어도 될 수 있다고 이 가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그 최고의 가치와 돈이 안 벌린다는 상황을 연관 지어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 지어볼 때 돈이 많이 벌리면 돈 쓰느라 정신없고, 돈에 취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믿고 마음을 든든하게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돈이 안 벌리고 있는 지금 상황은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간다고 볼 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지어볼 때 1년, 2년 재수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최고이고, 대학을 붙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학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지, 대학 졸업장은 뜻이면 주어질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그러면 재수 삼수 하는 게 갑자기 은혜의 사건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실패의 상황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성공을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걸 깨닫게 되고, 완전한 좌절의 순간이 진짜 소망이 보이는 순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경계심을 갖고 맞이해야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인생의 매순간 굽이굽이마다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지혜의 은사를 받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내 삶의 정황을 최고의 가치와 연관 지어 생각함으로써 반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필요할 때 경계심을 가져야 될 사건 속에서 해이해짐으로써 선줄로 알았다가 거꾸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지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왜 지혜의 은사가 없다고요?
마귀의 중력, 세상의 가치를 소원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떡하든지 떨어지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가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목회의 어려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부족하게 보이고 못나 보이기만 했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중력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마귀의 중력이 끊어진 자리가 십자가임을 보게 하시므로, 십자가에서 마음이 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